

## 乙酉年과 해야 할 일

乙酉年(을유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새해 첫날 남산에 올라갔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춥고 어두운 새벽에 올라간 그곳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업계의 낮익은 사람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개그맨 박명수씨의 사회로 새해맞이 행사가 재미있게 진행되고, 이어서 동녘 하늘이 점차 밝아진다 싶더니 함성소리와 함께 희망찬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떠오르는 해를 쳐다보며 사람들은 가슴에 품은 소망을 기원했으리라. 특히 을유년이 닭의 해인 만큼 업계 사람들의 소망하는 바는 남달랐을 것이라 생각한다.

을유년을 보내며 업계의 한 사람으로써 올해를 돌아보며 향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 • 금년상반기 - 호황 - 종계 생산성 저하

올해는 상반기까지 생계가격이 아주 높게 형성되었다. 이는 닭고기 주 수입국이었던 미국과 태국의 수입 중단의 이유도 있었지만 작년 연말부터 문제시되었던 종계 생산성 저하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정을 및 부화율의 저하 부분은 업계 전체에 영향을 크게 미쳤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하

고 있다.

다만 작년 연말부터 많이 쓰이기 시작한 옥수가 중국산이었다는 점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볼 부분이다.

특히 마이코톡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하여 사료관리법의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 금년 상반기 - 백세미의 급증 - 병아리 대체 수단

올해 상반기는 병아리 공급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하여 백세미 생산이 급증했다.

특히 백세미의 공급은 계절 수요가 크게 일어나는 삼계탕의 공급 목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상황이라고 판단되나 소비가 감소하는 계절에 생산량이 늦게 조정되어 8월 말복 이후 육계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적절한 백세미의 생산과 질병의 컨트롤을 위해 등록제 등 법적 제도 마련과 제도권의 수용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말복 이후의 폭락 - 미국, 브라질 수입 - 백세미 생산량 증가

닭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던 7월 이후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은 말 그대로 폭발적

으로 증가했다. 과거 최고의 수입실적을 보였던 2002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세미의 생산량 감축도 늦게 진행되어서 말복 이후의 가격은 말 그대로 대폭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수입업자도 폭락하는 생계가격에 손실을 적게 보기 위해 시장에 투매하는 현상까지 발생되어 시장이 더욱 폭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향후 수입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말복 이후 가격의 고착화 - 생산비 미만 가격 - 장기 불경기의 시작?

2002년 하반기와 같은 상황 연출 - 장기 불경기의 시작 조짐

2005년 10월까지 종계입식 물량 460만수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 경신

특히 6월~9월 종계 입식 물량은 2006년 2월 이후의 병아리 생산 잠재력에 영향을 미쳐 장기 불황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종계 입식 물량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내년 2월 이후 생산량 잠재력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소비 감소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으로 내년 2월을 맞게 된다면 장기간의 불경기에 가격 또한 생산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 • 10월 이후의 불경기 - 극단적인 소비량 감소(25%~30%) - 조류인플루엔자

10월 이후의 불경기는 극단적인 소비량 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매스컴의 조류인플루엔자 보도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8월~10월까지 종계 도태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금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그 반응 또한 히스테릭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발생국가 뿐만 아니라 발생이 되지 않은 나라에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스컴 보도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이 자주 화면에 인용되어 더욱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매스컴의 보도를 바로 잡고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소비의 왜곡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

#### • 10월 의무자조금 제도를 위한 첫 발걸음 - 자조금 대의원 선거

지난 10월 24일~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진 대의원 선거에서 135명의 대의원을 선출했으며 전체농가 58.7%(사육수수 63.7%)의 참여로 타 축종에 비해 높은 관심을 얻어냈다. 이는 자조금의 필요성을 업계의 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증거로 보인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여겨지는 시점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발걸음으로 업계의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심으로 노력해야 할 시점

이 아닌가 싶다. 의무자조금 제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의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

• 소비자의 신뢰회복 - 조류인플루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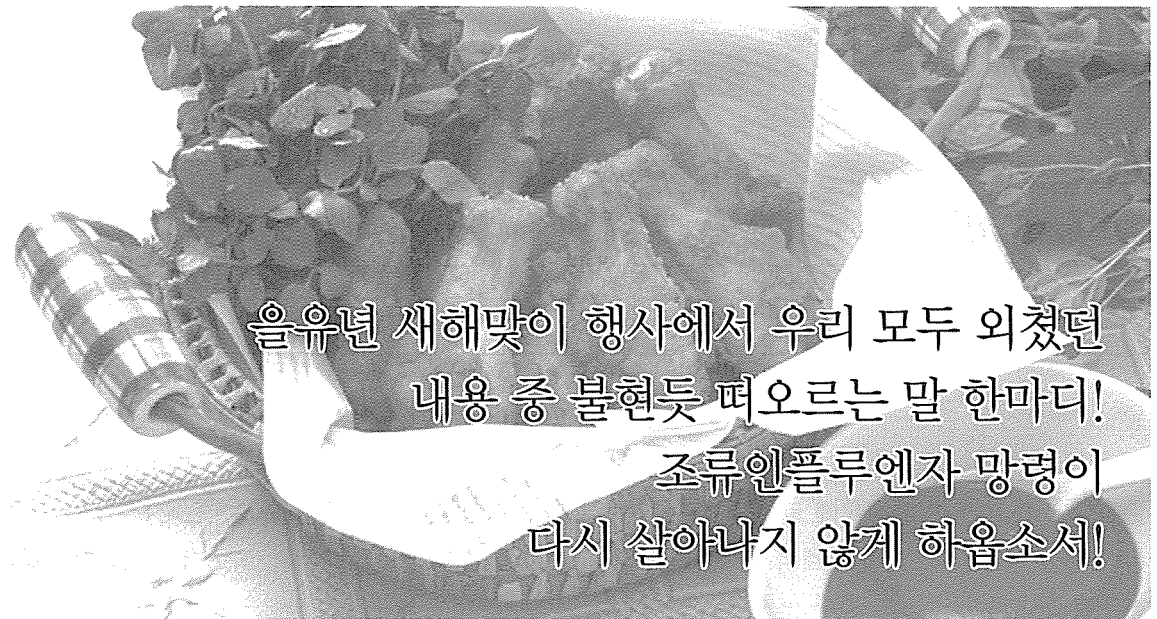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비자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보인다. 닭고기를 먹는 일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우리나라는 방역 체계가 완벽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과 같이 질병 통제가 되지 않아 사람에게까지 전파된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국내의 공중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는 현재의 국내 상황이 아닌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본다. 또 닭고기나 계란을 통하여 질병이 감염될 수 없으며 국내의 상황 또한 정확히 소개하여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는데 노력해야만 한다. C



최 충 집 이사  
(주)마니커 사육본부



을유년 새해맞이 행사에서 우리 모두 외쳤던  
내용 중 불현듯 떠오르는 말 한마디!  
조류인플루엔자 명령이  
다시 살아나지 않게 하옵소서!